**영화예술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생각하며**

오는 10월 27일이 영화인의 날입니다. 1919년 우리 영화인이 만든 영화가 첫 상영된 날을 기념하며 정한 영화인의 날이 올해로 91주년, 머지않아 100년을 맞이합니다. 돌이켜 보면 영화는 지난 20세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었고 대중문화 예술의 고향이었으며 모태였습니다.

저는 1960년 영화 연기자가 되어 20여 년간 영화와 더불어 보낸 청년기를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회 활동이나 사업 또는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몸과 마음은 우리 영화와 영화인들 곁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는 내 직업의 뿌리였고 내 인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화가 발전하고 동료 후배 영화인들이 활기 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가장 흐뭇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는 저의 삶의 토대가 되고 토양이 되어 준 우리 영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깊이 간직해왔습니다. 영화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결심한 것이 제가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생각했던 명보극장(명보아트홀)과 제주도에 있는 신영영화박물관을 기꺼이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충무로시대를 상징하고 우리 영화사(史)에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가진 기념물로 남아 있는 명보극장을 그대로 보존해야한다는 의미에서도 이제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제주신영영화박물관도 1999년 개관을 전후해 20여 년간 준비하고 수집한 전시물이지만 마땅히 사유재산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시대적인 변화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예술의 90여년 전통과 영화인의 우수한 창작 집념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는 두뇌산업이기도 해서 우리 영화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많은 인재들이 꾸준히 영화로 발길을 옮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보극장과 신영영화박물관의 전시재산은 영화계와 학계, 언론 및 문화예술계의 전문인사로 구성, 창립될 재단에 출연되어 공익재단에 준하는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해 영화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사업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신 영 균

**기부(기증) 재산 내역**

 **<명보극장>(명보아트홀)**

 우리 영화사를 상징하는 충무로 문화권의 극장(주소지는 서울 중구 초동)으로 신영균 전 예총회장이 주연한 <연산군><빨간마후라><남과 북> 등과 <은행나무침대> 등 숱한 화제의 영화들이 상영된 역사적인 영화의 명소. 대지면적 1,263.6㎡, 연면적 6,327.69㎡에 지하 4층, 지상 6층의 영화관 중심 복합공연시설.

 현재 극장 3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온뮤직네트워크(케이블 방송 MTV) 등이 일부 공간을 임대 사용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의 경우 부동산의 가치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으나 충무로를 상징하는 극장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이다.

 **<신영영화박물관>**

현재 제주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 남제주군 남원리 238번지 해안의 관광 절경지에 위치한 신영영화박물관은 시설 연면적 2,803.32㎡의 국내 최초, 국내 최대의 영화전용 박물관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영화의 탄생과 발달, 한국영화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전시관과 영상관, 체험관이 휴게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10여년간의 준비와 추진과정을 거쳐 1999년 6월5일 개관한 신영영화박물관은 국제 건축상을 받을 정도의 자연에 어울리는 건축 구조를 살려 건립되었으며 희귀 영사기자재와 영화 실물소품 등 중요 수집품만 총 918점을 전시 확보하고 있다. 토지를 제외한, 시설 및 전시물의 수집 비용까지 1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번에 신영균 회장은 자신이 명의와 권리를 갖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박물관의 시설물과 전시물을 전부 기부 재산목록에 포함시켰다.

**원로배우 신영균은...**

1928년 11월 6일 황해도 평산군 금암면 필대리에서 모태신앙에 뿌리를 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신태현(申泰賢) 씨와 신순옥(愼順玉) 여사의 차남으로 출생. 평산에서 살던 어린 시절 부친이 별세하자 자녀의 장래를 걱정한 모친의 노력으로 가족이 서울로 이주해 동대문에 있는 흥인초등학교를 다녔다. 이어서 한성중고교 졸업 후 극단 '청춘극장'에 입단, 일찍이 신극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으며 서울대 치과대 진학 후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연극부를 창립, 직접 무대에 오르는 등 연극부장으로 공연활동에 깊이 빠져들었다.

6.25직후 학업을 끝내고 해군 군의관 복무 후 잠시 치과의사로 활동한 시기가 있으나 1960년 조긍하 감독의 <과부>로 영화배우 활동을 시작하면서 1970년대까지 한국영화 전성기를 이끈 톱스타의 정점에서 20년간 <연산군><상록수><빨간마후라><5인의 해병><저 하늘에도 슬픔이><미워도 다시 한번> 등 294편의 작품을 남겼다. 대종상과 당시 대표적인 국제영화상인 아시아영화제 남우주연상을 고루 수상하며 사극과 현대물을 가리지 않고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남자다운 매력의 연기자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1968년부터 영화배우협회장,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이어서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예술인의료보험조합을 결성, 사회단체의 의료 복지운동 부문에서 선례를 열기도 했다. 예총회장을 세 번에 걸쳐 연임하면서 회관 건립의 숙원을 풀게 했으며 제15대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여야 의원 62명으로 구성된 국회문화예술연구회를 결성, 회장을 맡아 문화예술계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운동과 입법 활동에 앞장섰다.

신영균 전 예총회장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일찍이 서울의 대표적인 개봉 영화관 중의 하나인 명보극장을 운영하면서 1981년에 재단법인 신영문화재단을 창립, 장학사업과 단편청소년영화제를 통한 영화인재 발굴, 영화단체 행사지원 등의 기여사업을 해왔고 1999년 제주신영박물관 설립과 운영, 서울방송 계열의 SBS프로덕션, 제주방송 등 예술문화와 미디어산업의 경영 발전에도 열정을 바쳤다.

신영균 회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주력 재산으로 사업의 토대가 되었던 명보극장(명보아트홀)의 사회 환원에 대한 결심을 깊이 간직해 왔고 그 같은 뜻을 알고 있는 부인 김선희(金善姬) 여사와 아들 신언식(申彦植) 회장(한주에이엠씨) 등 가족들이 기꺼이 환영하면서 가까운 친지들과 조용히 시기와 기부방법 등을 계획하고 준비 해왔다.

신영균 회장은 군장교 시절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김선희(金善姬) 여사를 만나 1956년에 결혼, 슬하에 아들 신언식 회장과 딸 혜진(惠珍) 씨를 두고 있다.

**<학력>**

한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수료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

해군 중위 임관 및 대위 전역(군의관)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문화예술인의료보험조합 이사장

서울시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독립기념관 추진위원회 이사

서울방송(SBS) 창립주주 이사

월드컵 유치위원회 유치위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한주에이엠씨 회장

재단법인 신영문화예술재단 이사장

SBS프로덕션 회장

한성고 총동문회장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국회문광위원회 위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문화예술연구회 회장

현재 서울대총동창회 부회장

현 대한민국 국민원로회의 위원

현 제주방송(JIBS) 명예회장

현 전국 민영방송협의회 회장

**<상훈>**

제1, 2, 4회 대종상에서 <연산군><열녀문><달기>로 남우주연상

제9, 11회 아시아영화제에서 <상록수><빨간마후라>로 남우주연상

청룡상영화제(조선일보 주최)와 백상예술대상(한국일보 주최)에서 각각 남우주연상과 최우수 연기상을 3회, 2회씩 수상. 그밖에 인기상 다수

제2회 서울신문 문화대상

제7회 영화인의 날 문화공보부장관상

제28회 서울시문화상 수상

MBC 대한민국영화대상 공로상

충무로 국제영화제 공로상

대종상영화제 공로상

대한민국 동백훈장

**■ 출연작품**

1960년

과부(조긍하)

1961년(11편)

당쟁비화(안성찬) 마부(강대진)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이규웅) 상록수(신상옥) 어부들(강대진) 연산군(신상옥) 5인의 해병(김기덕) 일편단심(김수용) 임꺽정(유현목) 정부(백호빈) 정조(신경균)

1962년(31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엄심호) 동경서 온 사나이(박성복) 동학난(최훈) 부라보 청춘(김수용) 붉은 장미의 추억(노필) 비밀통로를 찾아라(이용호) 사랑과 미움의 세월(강대진) 사랑을 다시 하지 않으리(최학곤) 사랑의 동명왕(최훈) 산색시(박상호) 상한 갈대를 꺽지마라(강대진) 신입사원 미스터 리(김기덕) 십이인의 야도(강찬우) 아카시아 꽃잎 필때(조긍하) 악인은 없다(김기덕) 억세게 재수좋은 사나이(심우섭) 여자의 일생(신경균) 열녀문(신상옥) 원한의 일월도(최경옥) 인간만세(조긍하) 인목대비(안현철) 잊을 수 없는 애정(박찬) 전쟁과 노인(임권택) 주유천하(안현철) 천하일색 양귀비(김화랑,김기덕) 칠공주(정창화) 태양을 등진 사람들(최성관) 평양기생 계월향(이태환) 폭군연산(신상옥) 화랑도(장일호) 흑두건(장일호)

1963년(13편)

강화도령(신상옥) 나는 비밀이 있다(김용덕) 로맨스그레이(신상옥) 보은의 구름다리(최경옥) 사랑은 주는 것(엄심호) 쌀(신상옥) 쌍검무(최인현) 오인의 독수리(이규웅) 정복자(권영순) 죽도록 사랑해서(최훈) 철종과 복녀(신상옥) 한양에서 온 성춘향(이동운) 횃불(신상옥)

1964년(21편)

나는 속았다(이강천) 남이장군(안현철) 단장록(임권택) 달기(신필림) 모녀기타(강찬우) 목숨보다 더한 것(강대진) 벽오동 심은 뜻은(이규웅) 빨간 마후라(신상옥) 사자성(최인현) 석가모니(장일호) 십년세도(임권택) 아편전쟁(김수용) 여장부(조긍하) 월급봉투(김수용) 잉여인간(유현목) 진성여왕(하한수) 처녀성(홍성기) 천안삼거리(김기덕) 평양감사(조긍하) 형부와 새언니(신경균) 황금벌판의 혈투(김용덕)

1965년(34편)

가시나이(전응주) 갯마을(김수용) 광양의 호랑이(김묵) 남과 북(김기덕) 남아일생(권영순) 막내딸(김수용) 명동사십사번지(고영남) 모녀봉(권영순) 불나비(조해원) 빗속에 지다(임권택) 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정창화) 살아야 한다(이강천) 살인명령(정창화) 상해 오십오번지(고영남) 성난 독수리(김기) 슬픔이여 잘 있거라(강대진) 시장(이만희) 압록강아 말하라(강민호) 언제나 그날이 오면(조긍하) 예기치 못한 사랑(박종호) 왕과 상노(임권택) 용사는 살아 있다(김기덕) 인천상륙작전(조긍하) 잃어버린 세월(이상언) 장보고(안현철) 저 하늘에도 슬픔이(김수용) 정조성(최인현) 제3의 운명(김수용) 처가살이(이봉래) 청계천(박종호) 태조 이성계(최인현) 피어린 구월산(최무룡) 해병특공대(강민호) 홍도야 울지 마라(전택인)

1966년(17편)

군번없는 용사(이만희) 꽃가마(나봉한) 무명초(장일호) 물레방아(이만희) 병사는 죽어서 말한다(김기영) 비밀첩보대(권혁진) 산유화(박종호) 순애(박종호) 악몽(김성화) 여자이기 때문에(박근태) 이별의 강(최훈) 잘 있거라 일본땅(김수용) 적선지대(이한욱) 죽은 자와 산 자(이강천) 청춘행진곡(심우섭) 탈출명령(강범구) 평양기생(이규웅)

1967년(33편)

고별(고영남) 공주며느리(이규웅) 꿈(신상옥) 내몫까지 살아주(정소영) 냉과 열(이만희) 네자매(박종호) 단발머리(김수동) 돌지 않는 풍차(이봉래) 두 나그네(최인현) 뜨거운 안녕(김시현) 마적(신상옥) 마지막 요일(김수동) 망향천리(임권택) 문정왕후(나봉한) 방콕의 하리마오(이만희) 비서실(이형표) 산(신상옥) 산불(김수용) 상감마마 미워요(최인현) 서울아줌마(장일호 ) 수라문의 혈투(김시현) 암행어사(이규웅) 애인(김수용) 애하(이형표) 인조반정(나봉한) 장렬 509 대전차대(김동학) 종자돈(김진규) 천도화(최인현) 철면황제(최경옥) 청사초롱(임권택) 칠부열녀(최인현) 통금오분전(이정호) 풍운삼국(최인현)

1968년(33편)

괴도의 검(최경옥) 규방(정소영) 낮과 밤(전우열) 대원군(신상옥) 독수공방(나봉한) 랑(강조원) 로맨스마마(최인현) 맨발의 영광(김수용) 목가(김효천) 무숙자(신상옥) 미워도 다시한번(정소영) 바람같은 사나이(임권택) 방랑대군(최인현) 방울대감(나봉한) 사랑(강대진) 사랑했는데(박종호) 소라의 꿈(강대진) 순정(남상진) 언니의 일기(최인현) 여마적(신상옥) 일본인(김수용) 자주댕기(최인현) 찬란한 슬픔(전조명) 천하장사 임꺽정(이규웅) 철부지 아씨(김기풍) 칼맑스의 제자들(강범구) 탈출 십칠시(임원직) 파문(최훈) 팔도강산-속(양종해) 풍랑객(임원식) 풍운아(임원식) 하얀 곰(박종호) 효자문(문상훈)

1969년(33편)

검은 야회복(최훈) 남몰래 흘린 눈물(남상진) 내시-속(신상옥) 내실(유열) 눈물을 감추고(정소영) 당신(이성구) 당신의 뜻이라면(임원직) 목메어 불러봐도(김기) 못잊어(박구) 미워도 다시 한번-속(정소영) 별은 멀어도(홍성기) 봄봄(김수용) 사랑은 가고 세월만 남아(안현철) 사랑이라는 것은(안현철) 서울야화(강범구) 성녀와 마녀(나한봉) 세월이 흘러가면(조긍하) 여진족(이규웅) 요화 장록수(이규웅) 울고 가는 외기러기(심우섭) 유혹(변장호) 육군 김일병(신상옥) 이백오십조(장일호) 이조 여인잔혹사(신상옥) 잊혀진 여인(정소영) 잔혹한 청춘(윤성환) 저 눈밭에 사슴이(정소영) 젊은 여인들(조문진) 정과 애(변장호) 천년호(신상옥) 천춘을 다바쳐(김기덕) 한목숨 다바쳐(심우섭) 형(이상언)

1970년(30편)

거북이(이성구) 결혼대작전(최훈) 그 분이 아빠라면(김영걸) 기러기 아빠(권혁진) 두 여인의 집(이형표) 떠나야할 사람은(정승문) 명동가시내(전우열) 무영탑(김수용) 미워도 다시한번-3편(정소영) 버림받은 여자(강대진) 벽속의 여자-속(박종호) 비운의 왕비(장일호) 세상만사 뜻대로(정인엽) 숨겨논 여자(장일호) 슬픔을 외면할 때(한상훈) 약속은 없었지만(조문진) 어느 소녀의 고백(박종호) 엄마아빠 오래사세요(이성구) 여인의 종착역(김응천) 왜 여자만이 울어야 하나(정승문) 울고 간 여인(김기) 유정무정(이봉래) 이별의 십오열차(김기덕) 저 하늘에도 슬픔이-속(이상언) 저것이 서울의 하늘이다(김수용) 처와 처(최훈) 청춘무정(김수용) 태조 왕건(최인현) 한많은 남아일생(김효천) 호피판사(박윤규)

1971년(19편)

내실 사모님(김기) 늦기 전에(주동진) 대감신랑(임원식) 무정의 네온가(김시현) 미워도 다시한번-대완결편(정소영) 미워도 정때문에(최인현) 봄 여름 가을 겨울(신성일) 빗속에 떠날 사람(변장호) 빨간 마후라의 사나이(임원직) 세 남매(전조명) 암흑가의 공포(최인현)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이성구) 잠들면 떠나주오(남한) 집을 나온 여자(정소영) 짚세기 신고 왔네(박상호) 처복(조문진) 청산에 우는 새야(최훈) 친정아버지(최훈) 형-속(이두용)

1972년(9편)

궁녀(신상옥) 기로(이원세) 사랑하는 아들딸아(정인엽) 아빠라 부르는 여인(최현민) 이밤이여 영원히(정소영) 인간낙제생(최인현) 인생은 나그네길(변장호) 해벽(이성구) 헤어져도 사랑만은(김기덕)

1973년(6편)

고향에 진달래(이신명) 딸부자집(김수용) 삼일천하 김옥균(신상옥) 잡초(임권택) 천사의 메아리(김응천) 캐서린의 탈출(장일호,데이빗리치)

1975년

애수의 샌프란시스코(정소영)

1977년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임원식)

1978년

화조(김수용)

출처: 국회의원 신영균 의정활동 보고서

『문화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